

2024년 5월 26일. 26 May 2024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We give thanks to you, O God; we give thanks, for your name is near. We recount your wondrous deeds.

시편 Psalm 75:1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써 죄 사함 받은 저희는 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구원 받은 저희는 주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파합니다. 주여, 저희의 선교사역 중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들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베이지역에 세우신 교회들을 복 주시옵소서. 물질주의와 무신론으로 무장한 악한 세력을 성령님의 검으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로서" 함께 드리는 오늘 이 예배로써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멜리데에서 로마까지

From Malta to Rome

사도행전 Acts 28:1-15

1.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After we were brought safely through, we then learned that the island was called Malta.

2.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The native people[a] showed us unusual kindness, for they kindled a fire and welcomed us all, because it had begun to rain and was cold.

3.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When Paul had gathered a bundle of sticks and put them on the fire, a viper came out because of the heat and fastened on his hand.

4.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When the native people saw the creature hanging from his hand, they said to one another, "No doubt this man is a murderer. Though he has escaped from the sea, Justice has not allowed him to live."

5.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He, however, shook off the creature into the fire and suffered no harm.

6. 그들은 그가 붓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They were waiting for him to swell up or suddenly fall down dead. But when they had

waited a long time and saw no misfortune come to him, they changed their minds and said that he was a god.

7.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Now in the neighborhood of that place were lands belonging to the chief man of the island, named Publius, who received us and entertained us hospitably for three days.

8.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It happened that the father of Publius lay sick with fever and dysentery. And Paul visited him and prayed, and putting his hands on him, healed him.

9. 이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And when this had taken place, the rest of the people on the island who had diseases also came and were cured.

10.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They also honored us greatly, and when we were about to sail, they put on board whatever we needed.

Paul Arrives at Rome

11.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After three months we set sail in a ship that had wintered in the island, a ship of Alexandria, with the twin gods[d] as a figurehead.

12.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Putting in at Syracuse, we stayed there for three days.

13.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And from there we made a circuit and arrived at Rhegium. And after one day a south wind sprang up, and on the second day we came to Puteoli.

14.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There we found brothers and were invited to stay with them for seven days. And so we came to Rome.

15.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And the brothers there, when they heard about us, came as far as the Forum of Appius and Three Taverns to meet us. On seeing them, Paul thanked God and took courage.

하나님의 은혜로써 바울 일행은 풍랑을 헤치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한 사람도 상한 자가 없었고, 바울의 리더십은 확고했습니다. 또한 말씀 그대로 바울은 로마로 가 가이사 앞에 서야 했습니다.

바울은 멜리데를 떠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동안 지시하신 그 자리, 곧 사역의 땅에 마침내 도착한 것입니다. 실상,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뵈 이후, 주님의 종으로서 모든 발걸음을 온전히 주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제1-3차 선교여행은 물론, 예루살렘 귀환에서 로마에 이르도록.

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까?

1.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After we were brought safely through, we then learned that the island was called Malta.

배가 깨졌지만, 바울 일행 전원은 모두 다 구조되었습니다. 어떤 섬에 배가 걸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섬에 올랐습니다.

후에 알아보니, 그 섬은 "멜리데"(Malta)라고 불렀습니다. 길이는 27km (17 mile), 너비는 14.5Km (9 mile)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7분의 1 면적입니다. 현재 41만 명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마까지는 726Km 거리입니다.

2.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The native people[a] showed us unusual kindness, for they kindled a fire and welcomed us all, because it had begun to rain and was cold.

비가 내렸습니다. 날씨가 찻습니다.

원주민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을 특별히 동정했습니다.

이쯤해서 나는 10주일 동안 바다를 떠돌다가 1620년 북미대륙 메사츄세츠(Massachusetts)에 도착한 메이플라워호(Mayflower)의 132명을 잘 대우했던 원주민들 생각이 났습니다.

원주민들은 불을 피워, 바울 일행이 추위를 이기게 도와주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바다에서 나와 몸이 젖고 극도로 피곤했을 터였습니다. 어떤 도움이라도 이들에게는 대단히 큰 도움이었을 줄 압니다.

3.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When Paul had gathered a bundle of sticks and put them on the fire, a viper came out because of the heat and fastened on his hand.

불 앞에 있던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었습니다. 사그라지는 불꽃을 일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뭇단 속에서 독사가 나왔습니다.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4.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When the native people saw the creature hanging from his hand, they said to one another, "No doubt this man is a murderer. Though he has escaped from the sea, Justice has not allowed him to live."

원주민들은 “미신”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독사에 물린다면, 그는 그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자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맞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나, 이 섬에서는 어림도 없다!

원주민이 파악한 그 독사의 정체는 정확했습니다. 독성이 치명적이었습니다.

5.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He, however, shook off the creature into the fire and suffered no harm.

그런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뱀을 불에 떨어 구었습니다.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다.

6. 그들은 그가 붓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They were waiting for him to swell up or suddenly fall down dead. But when they had waited a long time and saw no misfortune come to him, they changed their minds and said that he was a god.

그 친절하던 원주민들이 “기다렸습니다.” 불의한 자이므로, 지금 심판을 받고 있으므로!
그런데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그는 여전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를 “신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도 제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Lystra)에서 선교할 때였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그에게 구원 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고쳤습니다. 우리가 외쳤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The gods have come down to us in the likeness of men!
사도행전 Acts 14:11b

바나바를 제우스(Zeus)라 했고, 바울을 “헤르메스”(Hermes)라고 했습니다.
물론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을 말렸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7.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Now in the neighborhood of that place were lands belonging to the chief man of the island, named Publius, who received us and entertained us hospitably for three days.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Publius)라는 이였습니다. 원주민의 추장쯤 되었겠습니다. 그의 땅이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영접하여 사흘 동안이나 친절하게 대했고, 머물게 했습니다. 바울이 뱀에 물렸지만 죽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8.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It happened that the father of Publius lay sick with fever and dysentery. And Paul visited him and prayed, and putting his hands on him, healed him.

그런데 마침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그가 나았습니다.

9.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And when this had taken place, the rest of the people on the island who had diseases also came and were cured.

소문이 섬 전체에 퍼졌습니다.

다른 병든 사람들도 왔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10.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They also honored us greatly, and when we were about to sail, they put on board whatever we needed.

원주민은 바울 일행을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떠날 때, 필요한 물품을 배에 실어주었습니다.

Paul Arrives at Rome

11.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After three months we set sail in a ship that had wintered in the island, a ship of Alexandria, with the twin gods as a figurehead.

그들은 멜리데 섬에 3개월 간 머물렀습니다. 이제 겨울이 막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내고 있던 알렉산드리아 배가 마침 로마로 향해 출항하던 참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 배를 탔습니다.

그 배의 머리는 디오스구로(twin gods)였습니다. 이들은 Castor와 Pollux입니다. 제우스와 레다의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바다의 항해사들을 돕는 신들로 여겨졌습니다.

각각의 신에게 부르짖는 장면 요나 1:6은 뱃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숭배가 극심한지 보여줍니다.

12.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Putting in at Syracuse, we stayed there for three days.

수라구사(Syracuse) 항구에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수라구사는 로마 반도의 고틀머리에 마주한 큰 섬 시칠리아의 동해안 항구입니다.

13.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And from there we made a circuit and arrived at Rhegium. And after one day a south wind sprang up, and on the second day we came to Puteoli.

거기서 둘러갔습니다.

레기온(Rhegium)에 도착했습니다. 레기온은 로마 반도를 장화로 볼 때, 앞꿈치 꼬트머리에 해당하는 항구입니다. 거기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남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이탈리아 반도 해안선을 따라 갈 수 있습니다. 마침내 배가 출항했습니다. 하루 종일 밤낮으로 항해했습니다.

이튿날 보디올(uteoli)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로마는 아주 가깝습니다.

14.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There we found brothers and were invited to stay with them for seven days. And so we came to Rome.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곳 형제들이 바울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벌써 "로마서"가 도착했을 것이고, 그 형제들은 그 서신을 읽고 곧 만나기를 고대했을 줄 압니다. 어쩌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고초를 소문으로 들어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 배가 로마 항구에 닿은 것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청했습니다.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은 로마에 도착한 것입니다.

15.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And the brothers there, when they heard about us, came as far as the Forum of Appius and Three Taverns to meet us. On seeing them, Paul thanked God and took courage.

압비오 광장(Forum of Appius).

보십시오. 로마에서 65Km 정도 거리입니다. 로마를 향하는 길 중 가장 오래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할 때 선택한 길입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전 번역은 "삼관," 곧 "세 개의 숙소"(Tres Tabernae)라고 번역했습니다. 로마 시내로부터 50Km, 31 mile 정도 거리입니다. 아피아 가도(Appian Way)에 있습니다. 로마에 여행하는 자들이 우선 머무는 지역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와서 영접했습니다.

바울은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도 바울은 마음이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The following night the Lord stood by him, and said, "Take courage, for as you have testified to the facts about me in Jerusalem, so you must testify also in Rome!"

사도행전 Acts 23:11

보십시오.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1.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유대인과 로마인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2. 바다를 항해할 때, 바울은 일행과 함께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와 풍랑에서 바울을 건져주셨습니다.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3. 멜리데 섬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런 해도 받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4. 시칠리아 섬의 시라쿠사,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의 남서쪽 고티머리 레기온, 그리고 로마 시가 지근거리인 보디올까지! 마침내 걸어서 승리의 입성을 시작하는 압비오 광장까지.

하나님께서서는 이리하여 바울을 무사하게 로마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calling) 파송하실 때는(sending), 마땅히 그곳에 이를 때까지 동행하심으로써 안전하게 해 주십니다. 중간에 쓰러지지 않게 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 없는 전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그 모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성령충만으로써!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진 고난은 우리를 마치 여기서 죽게 할 것처럼 으르렁거립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의심이 일어나고, 두려움과 공포가 극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써 증거 해 주십니다.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Be strong and courageous, for you shall cause this people to inherit the land that I swore to their fathers to give them.

여호수아 Joshua 1:6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But the LORD said to him, "Peace be to you. Do not fear. You shall no die!"
사사기 Judges 6:23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I have said these things to you,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e world

you will have tribulation.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요한복음 John 16:33

오늘 우리는 사명의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전에는 생명을 거두지 않으실 줄 압니다. 담대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환난 중에도 협력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주전 1세기. 극심한 로마의 기독교 박해와, 유대인의 치열한 파괴공작을 견뎌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거친 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바울이 이런 담대한 신앙을 가진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는 예수님과 동행 중이었습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시편 Psalm 23:1, 4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선교할 때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Look, I tell you, lift up your eyes, and see that the fields are white for harvest.
요한복음 John 4:35b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복음증거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We give thanks to you, O God; we give thanks, for your name is near. We recount your wondrous deeds.
시편 Psalm 75:1

복음전도자는 그가 전하는 복음과 그 삶이 일치합니다. 사역과 삶의 일치입니다.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and his grace toward me was not in vain. On the contrary, I worked harder than any of them, though it was not I,

but the grace of God that is with me.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5:10

지난주일 저녁, 밀피타스의 어떤 교회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송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둠 속 헤메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지난 주 목요일 성경공부 때입니다.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콘라드 밀러 형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의 고백은 지금 이 시간도 내 가슴에 메아리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그 일행을 바다 풍랑에서 건져주시고, 멜리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멜리데에서 머무는 중에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선교 사명지 로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주여,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